



2015 may report

길태오 Shetu 정기용 Shuvro
김혜련 Tuli 최현희 Khushi

Shuvoratti★



목차

1. 일간 일정
2. 팀원 소개
3. 활동 내용
4.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5. 소감



월간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5/31 하종 축제					1 Music club	2 정기회의 Art club
3 결혼식 Korea club	4 다하파라	5 다하파라 책장관련 두르가 푸르 별록집방문	6 정기회의	7 Youth meeting (도서관설계)	8 ST.Candida hostel 수업	9 Girls school 방 문 정기회의 Art club
10 Ideal school방 문 Korea club	11 활동보고서 완성	12 다하파라	13 350PPM 강연준비	14 350PPM 강연	15 ST.Candida hostel 수업	16 Art club
17 Korea club 엘리샤,다이아나 집 방문	18 YMCA 세미나 <Drug Abuse>	19 다하파라	20 정기회의 Meeting with Biplob	21 다하파라	22 중간평가 준비 Sibanidi 집 점심	23 정기회의
24 중간평가 Catholic church opening ceremony	25 중간평가 다하파라 중간평가 PT	26 중간평가 Host 방문 라니콩 교회방문	27 홍수에방활동 (sumsang river)	28 홍수에방활동 (sumsang river) 두르가푸르 시위	29 홍수에방활동 (sumsang river) 중간평가 피드백	30 정기회의 Art club

MBTI -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 우리들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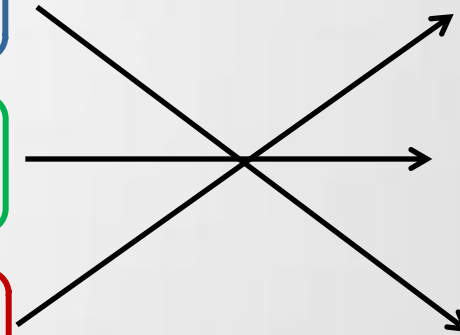
소감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 우리들! 알면 알수록 신기한 다름의 세계... 우리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해주기 위해서 MBTI 성격검사를 해보았다. MBTI는 총 4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2가지 경향이 있어 총 16가지로 구분된다.

● 주기능은 **직관(N)**, 변화와 가능성에 대한 열정과 통찰을 가지지만 경직된 상태일때는 새로운 사람, 아이디어, 가능성에 대한 강박적이고 무책임한 추구를 한다.

● 주기능은 **감각(S)** 이며, 외부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선입견 없이 잘 받아들이지만 경직된 상태일때 새로운 경험을 위해 소비적인 탐구를 한다.

● 주기능은 **사고(T)**이며, 외부세계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결단력 있게 대응한다. 경직된 상태일때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공격적이게 된다.



➡ 검사결과, 슈브로는 ENTJ형, 풀리와 세뚜는 ESFP형, 쿠쉬는 ENFP형이었다.

Khushi - 의미추구자형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ENFP - 열정가형

- 1) 자신이 선호하는 일에 에너지가 넘치고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함
- 2) 인간과 관련된 일이나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일에 정열을 바치는 스타일. 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제로 하게 되는 경우, 에너지가 금방 소진됨
- 2) 평화와 조화를 중요시하고 개별적 관계를 중시
- 3) 자아실현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큼
- 4)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고자 함 (남들과 똑같은 것을 싫어함)
- 5) 언어에 대한 재능을 나타내는 경향
- 6) 마음의 상처를 주려고도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성격
- 7) 사랑유형 - 사랑에 빠지면 영원한 낙천주의자임, 온전하게 되도록 도와주고 그의 의미적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



“친밀감, 개인적 성장,
의미추구, 상상력의 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Shetu, Tuli - 자극추구자형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ESFP - 연예인형

- 1) 항상 웃음과 미소를 잃지 않으며 발랄함, 주목 받는 것을 좋아함
- 2) 즉흥적인 기술이 좋아 계획성 없어도 쉽게 적응하는 기질을 보임
- 3)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며, 거의 혼자 있지 않음
- 4) 일하다가 재미없으면 재미로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음
- 5) 모험심과 호기심이 많고 위기에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처
- 6) 자신의 오감을 활용하는 것을 선호
- 7) 사랑유형 - 항상 조화로운 감정을 유지하기 원함, 갈등을 몹시 싫어함



“재미, 자극, 모험, 자발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Shuvro - 지식추구자형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ENTJ - 장군형

- 1) 현상을 보는 시야가 몹시 넓으며, 통이 큰 사람들, 뛰어난 설득력을 가짐
- 2) 카리스마가 매우 강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세우면 감히 제동을 걸지 못함
- 3) 관계에 있어 인간관계 폭이 매우 넓어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을 만 들어옴
- 4) 미래의 발전과 비전이 보이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려 하고 추진력이 강함
- 5)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논리적 이유를 추구함
- 6) 인생은 진지한 연구와 탐험의 과정
- 7) 사랑유형 - 자신만만하며 강한 태도를 가졌지만 재치 있는 상대에게 끌림, 또한 외모가 멋지고 잘 꾸미는 사람에게 끌림



“논리와 자극적인 논쟁, 지성, 능력, 지속적인 성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호스트 패밀리 소개



두 달의 YMCA 생활을 마치고 각자의 Host로 이동한 슈보라뜨리 팀!
이제 남은 세 달은 팀원들 각자 흩어져 홈스테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끼리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현지 가족의 품에 들어가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은 많이 적응하고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알콩달콩 우리들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

호스트 패밀리 소개

Shetu Chiran

- 메갈로이 삼촌네
- 가족 : 엄마, 삼촌, 숙모, 삼촌네 딸 3명, 타 도시에서 유학 온 아이들 2명, 수시로 오는 친척들
- 한국에서 핵가족의 대표주자 였던 저는 한국에서 보기 힘든 정말 대대대가족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대신 행복이 있구요. 매일 배려하며 음식을 나눠먹고 개인활동은 줄여가며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귀여운 아이들에 재롱에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펌프질로 물을 길어 나르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



호스트 패밀리 소개

Tuli Sangma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오빠, 남동생, 니또엄마, 니또, 개 4마리, 오리식구들, 슈꼬르

- 정겨운 우리집^^ 호스트패밀리를 만나 행복한 돌리

무뚝뚝한 듯 다정하신 엄마, 아빠. 늘 바쁘시지만 저녁이면 항상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라디오를 즐겨 들으시는 할아버지는 항상 먼저 돌리의 안부를 물으며 신경 써주십니다.

마지막, 할머니와 니또엄마의 기가 막힌 음식솜씨! 덕분에 매일 맛있는 음식으로 또 다른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돌리 (매일 살찌는 건 비밀...)



호스트 패밀리 소개

Shuvro Nokrek

- 얼룩 삼촌네

-가족 : 삼촌, 숙모, 동생 2

- 더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 현재는 얼룩 다다, 마야 디디, 두 명의 동생 베텔. 스뚜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에는 나이들이 젊어서 다다(삼촌), 디디(숙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다와 디디가 너무 바쁘셔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매일 밤 모두 거실에 모여 하루의 피로를 스뚜피의 재롱으로 날려보냅니다.



호스트 패밀리 소개

Khushi Rema

- 가족 : 엄마, 할머니, 언니, 형부, 조카

- 한국음식을 좋아하시고 시크한 매력으로 챙겨주시는 엄마,
늘 “베시 베시 카우” (많이 많이 먹어)라고 말해주는 할머니,
배려심이 많고 짬짬이 친언니처럼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비리시리에서 가장 예쁜 루브 디디,
일할 때는 카리스마 넘치지만 집에서는 아들 바보인 비플롭 다
다,

이제 막 웅알이를 시작한 조카, 귀요미 맥스!

웃는 모습이 천사같은 귀염둥이 맥스는 방글라 이름, 오롯 한국
이름은 영준으로 불리우며 늘 활기찬 아가입니다. 바쁘거나 활
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맥스랑 놀다보면 걱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마음이 정화되곤 합니다. 가끔 치마에 맥스가 오줌을
쌀때도 있지만 그것마저 귀여운 것을 보면 저도 조카 바보가
되었나봅니다. 😊



“활동내용”

정기적인 활동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1. 다하파라(NFPE) 학교 수업

: 다하파라 수업은 매주 월,화,목 주 3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목은 정규수업인 영어,수학을 비롯해 체육과 음악, 미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기가 시작되어 수업을 빠지는 일이 잦아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Class1 아이들의 경우, 5세, 6세 정도의 어린 아이들도 있어서 늘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기에 “보쇼!(앉아)” “춤!(조용히해)”만 외치다가 수업이 끝날 때도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고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기에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지만, 늘 해맑았던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는 아이들과 최대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정기적인 활동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2. ST. candida Hostel 수업

금요일 4시, 일주일에 한 번 태권도와 K-pop댄스를 80여명의 여학생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8주 과정의 수업이 끝난 후에는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앞으로도 다른 활동을 함께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으로 비리시리에 다른 호스텔이 많이 있고 훨씬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이 호스텔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 이에 대한 고민을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기적인 활동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3. YOUTH CLUB

매주 3회 유스클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Music club, 토요일 Art club, 일요일 Korea club 이 있으며, 아트클럽 시간(사진)에는 YMCA 풍경을 그려보기, 전통매듭 만들어보기, 친구 얼굴 그려보기, 색종이로 모빌 만들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스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더불어 시험도 자주 있으며 개인적인 일로 바쁜 관계로 유스클럽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클럽을 시작하기 전에 문자도 돌려보고 동네도 한바퀴 돌아보며 유스들을 불러보기도 해봤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가장 참여율이 저조했던 뮤직클럽의 경우, 아쉽지만 중간평가 이후 무비클럽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혼식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15.05.03

3번째로 참가한 결혼식! 크리스천인 가로족이 대부분인 비리시리에서는 12월 한 달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축제처럼 즐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결혼식이 12월에 있기에 이번 결혼식은 13기가 볼 수 있는 마지막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다카나 마이멘싱으로 떠나있던 많은 유스들이 다시 모여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리시리 신랑과 이달푸르 신부의 결혼식이었기에 지난 달에 이달푸르 YMCA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



350PPM 강의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15.05.14

비리시리의 여학교인 Girls school에서 350PPM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에서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데요. 그 뜨거운 열기를 직접 느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의는 350PPM이라는 개념설명 보다 방글라데시 기후난민에 대한 동영상 시청, 지구를 아프게 하는 나쁜 버릇에 대한 연극, 자신의 약속을 적은 포스트잇으로 나무 만들기 등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 보려 했습니다. 부족한 수업이었지만 유스들이 많이 도와주었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YMCA 세미나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15.05.18

“DRUG ABUSE”를 주제로 YMCA와 YWCA가 함께 진행한 세미나에 슈보라뜨리팀도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게임을 비롯한 약물 중독을 주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세미나가 벅골어로 진행되어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해석해주는 YOUTH들과 재밌는 게임 덕분에 저희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간평가



5월 24일 부터 26일까지는 중간평가가 있었다. NCYK의 이은솔 간사님과 진주Y의 이미라 간사님, NCYB의 니폰 총장님께서 방문하셨다. 비리시리라는 시골마을이 익숙해진 우리들은 오랜만에 한국어로 팀원이 아닌 사람과 한국어로 말한다는 것이 신기하고 반가웠다. 일상이 되었던 마을 곳곳의 길들이 그들의 방문으로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면서 반절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과 또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러자 아쉬움과 동시에 끝을 생각하기보다 모두들 이곳에 잘 적응하여 살고 있었다는 것이 감사했다.

(1) 중간평가 첫 날에는 마을에 성당이 새로 생겨서 opening ceremony 있었기에 모두 참석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당건립을 축하했고 공연과 연극도 관람하고 저녁식사도 함께했다.

중간평가



Dahapara, Hostel

- Shortage of Professional
- Language barrier

Youth club

- Participation rate
- Exclusiveness
- Persistency

Library

- Ownership
- Lack of space, budget

(2) 둘째 날 오전에는 다하파라로 향했다. 간사님들은 영어2와 수학수업을 참관하셨고 수업 후에는 다하파라 마을을 한바퀴 돌았다. 오후에는 비리시리 YMCA 이사진들과 Host family를 모두 모시고 PT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들의 3,4,5월을 돌이켜 보고 생활내용과 활동내용, 아쉬웠던 점, 앞으로의 계획과 소감을 발표했다.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내리면 다하파라와 호스텔 수업과 같은 교육 면에서는 전문성의 부족, 언어의 장벽을 느꼈고 유스클럽에서는 참여율 저조와 지속성의 문제, Y youth가 아닐경우 배타시하는 문제가 있었다. 도서관의 경우, 주인 의식을 심어준다는 것이 어려웠고 할당되었던 예산이 부족하고 유스룸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중간평가



(3) 셋째 날, 아침에는 슈브로, 쿠쉬, 툴리, 세뚜 순으로 모든 Host를 다 돌았다. Biplob, 이미라 간사님, 이은솔 간사님, 루벨, 운전기사 아저씨 그리고 우리 넷은 그야말로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였다. 집에 갈 때 마다 짜랑 음식을 대접해주셔서 다 돌고 나니 배가 빵빵해져 있었다. 넷의 공통점은 각자 집에 도착하면 우선 자기 방을 치우러 먼저 사라졌다는 점이다. 그래도 다들 살고 있는 집과 가족을 소개할 때 부끄러운 듯 하면서도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였다.

중간평가



(4) 오후에는 라니콩의 교회를 방문했다. 늘 바라만보던 습상강을 보트를 타고 건넜다! 끝없이 펼쳐진 강물과 시원한 바람, 푸르른 나무들은 가기 전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다. 약 100년전 라니콩에서 처음으로 가톨릭이 시작되었던 곳이라 기념하는 동상들과 오래된 느낌의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다. 비리시리에만 있다가 강을 건너니 기분도 좋았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걸었다는 것이 추억에 남을 것 같다.

중간평가

(5) 그리고 저녁에는 25일, 26일에 걸쳐서 개인면담을 진행하였다. 우리 팀의 갈등과 개인의 고민들을 털어놓으면서 우리들은 3개월 동안 묵혀왔던 문제들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담 시간에 지원서와 스스로에게 썼던 편지를 건네 받으며 각자 생각에 잠겼고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간이었다. 우리들은 중간평가를 통해서 확실히 refresh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Feedback

팀 내 정해진 규칙이 없음
팀원 간의 대화가 없음
갈등이 생기면 참지 말고 부딪치기



큰 틀의 규칙을 몇 가지 정하고 이를 지키기로 함
매주 각자의 집에 저녁식사를 초대하고, 금요일 오후는 팀 내 시간을 보내는 날로 정함.
1:1로 팀원과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중간평가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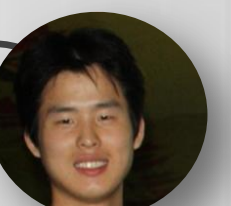
매 기수들의 중간평가 소감을 보면 많은 걸 느낀 것 같아 보여서 나도 괜히 중간평가에 대한 기대가 많았어. 혼자 풀기 힘든 것 같은 문제에 막연한 구세주를 기다렸는지도 몰라. 근데 정말 중간평가가 나에게서 큰 계기가 되었어. 우리 안의 문제를 밖의 사람들이 보니 훨씬 잘 보였나봐. 덕분에 앞으로 활동에서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큰 계기가 되어서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껴.



너의 행복을 찾으라는 간사님의 조언이 기억나!
내 행복을 찾아 팀원들과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잘 지내보고 싶어



나는 사실 중간평가를 그리 기대하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기대하면 실망할까봐. 우리 팀의 관계도,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무엇인지 몰랐는데 신기하게도 간사님들이 객관적인 입장으로 봐주셔서 나도 잠시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었던거 같아. 익숙했던 비리시리가 다시 소중하게 다가왔다고 해야 할까... 특히 잠시 쉬면서 라니콩도 다녀오고 보트도 탔던 것이 너무나 좋았어! 비리시리에만 있다보니 몸도 마음도 점점 굳어졌었나봐. 그리고 확실히 우리 네 명 모두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좋아. 😊



중간 평가 전까지는 활동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팀원들한테는 많이 소홀했어.
그러다 보니 활동도 생각처럼 잘 안되고 팀원들과도 잘 못 지냈던 것 같아. -
중간평가가 끝난 지금은 앞으로 활동보다 팀원들과 즐겁게 잘 지내다 갔으면 좋겠어.

Thanks to...

Thanks to.. 신유식님, 최경원님, 정은혜님 무엇보다 저희 개인 집을 비롯해 라면과 김치 등 향수병 치료제들을 들고 와주신 NCYK 이은솔 간사님, 진주 YMCA 이미라 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수 예방 활동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15.05.27 ~ 05.29

YMCA, YWCA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홍수를 예방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3일에 걸쳐서 슈보라뜨리팀도 함께 모래를 날랐습니다. 더운 날씨에 무거운 모래는 우리를 헉헉 거리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힘든 일을 함께 해내는 것의 성취감은 엄청났습니다. 포크레인이 없어도 두 사람씩 짝을 이뤄 모래를 운반해 100m가량의 길을 만들고 시멘트를 포대에 담아 독처럼 만들었습니다. 홍수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느낄 수 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디 이번 홍수 때 피해가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르가푸르 시위참여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15.05.28

방글라데시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살고 있는 비리시리는 무슬림이 아닌 크리스천인 가로족이 대부분인 마을입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인 가로족은 여전히 편견과 탄압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다카의 백화점에서 일하던 판매직 여성이 납치된 일이 있었습니다. 용의자들은 피해여성의 매장에 방문해 그 여성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하며 여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여성을 일자리 제안을 이유로 불러 냈고 여성을 줄로 묶어 납치하였습니다. 2~3시간 가량 차에 태워 다카 주위를 돌고 후에 길가에 버려둔 채 도망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납치와 더불어 피해여성에게 말하기를 “네가 벵골인이 아니라 소수민족이라 납치를 한다”는 말을 했었고 그 여성이 가로족이 였기에 YMCA와 YWCA 등 가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위는 여성의 인권과 가로족의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마이크로 의견을 말하는 평화적인 시위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요.”



꿀리의 오넥모자 (너무 맛있어~)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야심 차게 기획한 프로그램 제 2탄! 안녕하세요 비리시리 먹방계의 샛별 꿀리입니다.
지금부터 매 끼니 우리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는 산소와도 같은 다양한 먹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입맛이 고급이라 믿고 보셔도 됩니다.^^ 자, 다들 군침 돌 준비하시고 슈루(시작)~



카레

주식이 카레인 만큼 방글라데시엔 많은 종류의 카레가 있다.야채가 들어간 노란색 카레를 제일 많이 먹지만 개인적으로 여태껏 먹어 본 카레 중best of best는 꿀리네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데리야끼 맛나는 닭고기 카레!

세븐업

무더운 여름, 1일 1음료 아니 그 이상도 한다. 서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날씨, 무언가에 홀린 듯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발은 시원한 세븐업을 파는 도칸(매점)으로 향한다. 더운 날 갈증해소엔 그냥 너가 최고다.



딸리의 오넥모자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열대과일

6월 과일철이 되자 까탈, 리치, 망고 등 맛있는 열대과일들이 많이 열렸다. 덕분에 행복하다

까탈은 너무 단 것보다 약간 씹히는 식감이 있는 하드타입의 까탈이 맛있다. 까탈 먹기 대회가 있다던데 나가면 일등할 수 있을 것 같다.

리치는 쿠쉬네 리치가 맛있다. 한입 베어 물면 과즙이 장난 아니다. 한 번 먹으면 손을 떼 수 없다는 쿠쉬네 리치♥



다양한 길거리 음식

싱하라, 뿌리, 쇼무자. 우리가 즐겨먹는 카레가 들어간 튀김류 간식이다. 회의를 하다 허기질 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우리 바자르(시장)에 들려 어김없이 이들을 찾는다. 바삭한 튀김에 맥주가 생각날 법 하지만 여긴 없다. ㅠ ㅠ 양과절임과 함께 먹으면 그냥 끝이다. 꿀맛 the love...♥

슈브로에게 '뿌리'는 밥이다.



칼럼 - 두 달째, 채식중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최현희 특파원
(방글라데시)

두 달째 채식 중이다. 4월 7일, 시장에서 닭의 목이 비틀어져 죽고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 먹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Y옆에서 우연히 염소가 질질 끌려간 후 가죽이 벗겨져 걸려있고 뼈와 살을 분리해 내는 도축 하는 장면을 처음 보았다. 그것을 보고 저녁으로 닭고기 카레가 나왔을 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아직도 새빨간 피가 선명하고 동물이 죽어가는 것을 처음 보았기에 나에게 충격적이 경험이었다.

하지만 여태까지 고기를 잘 먹고 살아왔기에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우스웠다. 또한 잠시 뿐이고 다시 고기가 먹고 싶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잊혀졌던 미트리스 데이(환경을 위해 일주일에 한번 고기 먹지 않기)를 지키려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고기를 자주 먹진 않았고 언젠가는 채식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4개월 만쯤이라도 고기를 안 먹어 봐야겠다고 다짐했다. 그즈음, 박노해 시인의 책을 읽으며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연 속에서 큰 욕심을 부리고 있나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동물이 좋아진 것도 이유다. 난 원래 동물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는데 비리시리에는 늘 친숙하게 옆에, 길가에 동물들이 있다. 염소와 같이 걷고 개와 돼지는 항상 누워있고 닭, 병아리, 오리, 고양이는 걸어 다니고 소는 하루 종일 풀을 먹다가 지치면 큰 길가에 누워서 잔다. 특히 아기 염소들이 정말 귀엽다. 그런 동물들이 결국엔 잡아 먹히기 위해 길러진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슬프다.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아미 망쇼 카보나” (저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아니 왜?’ 라는 표정을 짓는다. 여기서는 고기반찬이 가장 맛있고 좋은 반찬이기에 더욱 그러하고 손님으로 갔을 때 안 먹으면 죄송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왕 하기로 결심한거 끝까지 해보고 싶다. 그리고 신기한 건 고기가 먹고 싶은데 힘들게 참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한국으로 돌아가면 치맥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다. 그럼에도 일년에 6개월만이라도 채식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단순한 이유에서 채식을 시작했지만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 특히 소화가 잘 안되거나 변비에 시달린 적이 없고 속도 편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존재가 살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어쩔 수없이 많은 생명이 죽지 않는가. 내 욕구를 조금만 참아서 피해를 덜 줄 수 있다면 실천해보고 싶다. 고기를 안 먹는게 뭐 그리 대단한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나 역시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나 채식은 문명과 멀어지고 자연과 더 가까이 지내다 보니 생겨난 나의 지키고 싶은 또 다른 욕구이자 작은 변화이다. -쿠쉬

진실게임 (다하파라)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1) 다하파라는 어…… 너무 힘들어. 완전 더운 날씨에 비포장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정말…… (눈물이..)

(2) 맞아 땀별에 살이 타 들어가는 느낌이야 근데 막상 도착해서 애들을 보면 힘나…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

(3) 나도 힘들긴 진짜 힘든데 다하파라는 가고 싶어.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자전거에 대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나는 걸 보면 릭샤를 타던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4) 힘들어 죽겠는데 천사 같은 아이들의 미소를 보니 힘이 다시 솟는다고? 그런 날도 있지 근데 정말 힘들어 죽겠는 날에는……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돌아댕기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때에는 머리를 콕 쥐어박고 싶은데? ㅋㅋ

(5) 나는.. 사실 자전거를 탈 때마다 항상 사고가 날 거 라고 생각하고 타 왜냐하면 나의 예상이 빗나간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 “아 여기서는 넘어지겠구나” “아 저 릭샤가 나와 부딪치겠구나” 하면 바로 현실이 되어서 나타났더라구. 특히, 더운 날에는 진짜 숨쉬기가 힘들더라. 도착해서 아이들을 보면 너무 행복하긴 한데 그래도 준비해간 수업을 제대로 못할 때는 눈물이 날 것 같더라.. 흑 그치만 이상한 쾌감은 말야. 미치도록 힘든데 우리 넷이 늘 무사히 돌아오는 게 엄청나게 대견해 ㅎㅎ 아 그리고 이 문제의 시초는 우리 방글라데시 기수가 너무 튼튼하고 바보 같았던 것 같아. 매기수가 사고가 났다는데 왜 계속 자전거만 탔을까 T T 특히 8기가 너무 강했어……

진실게임 (다하파라)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7) 점점 더 더워지는 날씨에 그 거리 자전거 타기도 힘든데 그냥 다 때려치고 우리 자전거 비용으로 리샤 타고 가자.

8) 다음달 초까지만 하고 다하파라 활동은 종료할꺼야. 누구 맘대로 종료하냐고? 내 마음이지 누구 마음이야.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감정적이긴한데? 팀원 중 한 명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굳이 다같이 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Y도 다른 프로그램이 있거나 하면 다하파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취소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에 y에 오면 off day이니까 오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고. 실 수가 있겠어? 예산 필요하다고 달라고 해도 일주일 후에 주는데 ...
(담배 피고 올께...)

9) 사실 현지 Y에서 다하파라에 대해 그리 중요하게 생각 안하기는 하지 그게 문제점이고, 근데 난 애들이 좋아서 그런지 자꾸 다하파라에 정이 간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라도 열심히 가는데 대신 이대로는 아니고 팀원 체력을 고려해 리쇼나 팀원 몇 명만 가는 방법으로 유지 하고 싶어.

진실게임2 (유스클럽)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1) 유스클럽 이야기 시작해보자
아니 애들이 왜 안 와…?

2)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기존의 유스들이
대도시로 떠난 것도 있지만, YMCA의 폐쇄적인 성격
이 동네의 모든 유스들을 불러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

3) 우리는 비교를 하고 있어. 아니 사실 예전 그랬던 거는 사실이야. 첫 기수들 때는 정말 유스들이 많이 찾아왔지. Y에 오
기보다는 우리랑 함께 놀려고 ..~ 나는 유스들이 여기에 얼마큼 오던 간에 오라고 강요는 하고 싶지 않아. 오든 말든... 오는
애들만이라도…..

4) 맞아 나도 강요는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찾아오는 유스들만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마을 유스라는 틀에 갇혀서 club을 진행한 게 속상해 club을 마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 이용할 수 있
었을 텐데 말이야 특히, 코리아 클럽 같은 경우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구..
개인적으로는 지난 기수의 보고서를 보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기타치고 함께 음악적인 교류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아쉬워!
흑

5) 지금부터라도 잘해보자. 나도 오는 애들만이라도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오는 애들도 요즘엔 뜸해서 문제
지만… 우리가 유스들이랑 더 친해질 필요가 있을 거 같아! 그럼 유스들이 오지 않을까…?ㅎ..ㅎ

진실게임2 (유스클럽)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6) 지금도 유스들이랑 친하잖아? 정말 친한데. 내가 지금 열 받아서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솔직히 나 같아도 Y에 안 와. 내가 여기에서 태어나고 여기에 Youth멤버 였다면 아니 Y유스에 속해있지 않았을까야... 개인의 기본 욕구도 채워주지 않고 열정페이만 강조하면서 매일 volunteer 타령이야. 항상 volunteer만 강조하는 YMCA! 유스들이 당연히 좋아할 리 없지.

7) 사실 Y가 유스들을 봉사라는 이유로 항상 무급으로 이용하고 이에 대해 현지 유스들의 불만이 가득한 건 사실이야. 또한 라온아피가 6번째 오면서 한국인들이 익숙해지고 점점 흥미를 잃어가니까 Y에 안 오는 것 같아. 이런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을때는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어. 마냥 노력한다 어쩌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게 잘 되지 않았거든. 계속 드는 생각은 라온아피가 이제 쫓겨날 때가 확실히 된 것 같다는 거야.

이달의 발로본두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리자



큰눈이 예쁜 리자! 이번달, 350 강연때 연극 주인공도 도맡아 하고 다하파라에 루벨이 같이 못갈때는 수업을 도와주기도 했던 착한 리자 😊 늘 함께 해주는 리자가 있어 든든하기에 이달의 발로본두로 선정합니다 ^ _ ^

이달의 발로본두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슈몬



한국어를 참 잘하는 슈몬!
운동도 잘하는 우리의 슈몬!
수줍음이 많지만 한번 친해지면 한국어로 이것저것 물어보는 슈몬! “나태한 세뚜형”, “고단한 누나”, “누나~ 모래 먹어요” 귀여우면서도 어려운 형용사 사용으로 모두에게 웃음을 주었으므로 이달의 발로본두로 선정합니다.

두 나라 보고 있나?!_ 캄보디아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두 나라 보고있나 코너의 000입니다. (실명 사용시 돌팔매질이 두려움) 행복의 나라 방글라데시에서 보고 서로 다른 나라를 지켜보니 이견 활동을 하러 간건지 관광을 간건지 구분이 되지 않아 이런 코너를 만들었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웃자고 그러는 거 다들 알지? 사랑해)

먼저, 캄보디아.. 너희도 알다시피 정말 관광 많이 가더라? 진짜 내가 황당해서 난 사진보고 무슨 홍콩의 밤거리 인줄 알았잖아 참나.. 해먹에서 누워서 휴식을 취하지 않나, 섬으로 여행을 가지 않나, 윤원섭 단원은 혼자 여행도 갔더라?(남..부..립..)

너희가 그리고도 라온아띠라 할 수 있어? 라온아띠는 말이야 그런게 아니야 항상 현지 활동을 고민하고 지속성을 토론했고 그러는게 라온아띠란 말이야. 안되겠다 너희 한국가면 정기용 간사님에게 피드백 좀 받아야겠다. 각오해 가만두지 않을테니까!

P.S 너희 벌로 방글라데시에 맥주 40병만 좀 보내줘..



▲사진출처 : 라온아띠 13기 캄보디아팀 4월 보고서

두 나라 보고 있나?!_미얀마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그 다음, 미얀마!

우리가 너희 팀은 조금 인정 해줄게. 여기도 날씨가 엄청 더워서 40도 정도면 우리가 인정해줄 수 있지.

근데 말이야 너희 닭갈비에 냉면에 뭐??? 치킨?? 맥주??? 현지 활동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치맥이 목에 넘어가니? 김혜련 단원은 치맥 대신 열대과일(까탈)만 주구장창 먹는데 너희도 혼나야겠다. (진짜 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

그리고 티스푼..? 너희가 손으로 밥을 먹어봐야 “아 우리가 정말 편했구나” 생각하지.

우리 말이야 서로에게 밥먹었냐고 안 물어봐. 그냥 손에서 카레냄새나면 밥먹은거야. 너희 라온아띠야 라온아띠에겐 티스푼도 사치란 말이야 알겠어? 너희도 캄보디아랑 같이 정기용 간사님에게 상담 좀 받아.

P.S 벌로 물냉면 4그릇만 방글라데시로 보내줘 ㅠ ㅠ



▲사진출처 : 라온아띠 13기 미얀마팀 4월 보고서



소
강.

세뚝_래오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정말이지 5월도 지나가버렸다. 지난 5월은 나에게 힘든 시기였다. 그렇게 잘 가던 날짜도 꾸물꾸물 천천히 흘러갔고, 내 안의 문제들과 팀 내의 문제들이 모두 발견된 달 이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내가 겁쟁이라는 거였다. 문제를 아는데 부딪히지 못했다. 아니 자신이 없었다. 매일 방법만 고민하고 스스로 자책만 했지 속 시원히 이야기 해보지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했다. 왜 그랬는지 갈등이 무서워 그랬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현지에서도 무슨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내가 라온아띠라는 생각에 모든 문제를 나 자신에게서 찾고, 내가 바뀌어야 하고 또 적응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설사 그들의 틀린 행동을 보더라도 가슴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머리로는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본 것이라 치부하게 되었다. 어디까지가 다름이고 어디부터 틀림일까 내 안의 중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모든 생각이 다 들었다. 짜증도 났고 라온아띠가 뭘지 뭐길래 이런 희생을 나에게 강요하는지 괜히 했다는 생각도 했다.

나중에 나는 이 기억들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행복한 추억이 될까 추억이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군생활 같은 존재가 될까 궁금하다.

또한 나에게 6월, 7월은 어떤 의미가 될까? 지금까지 많이 깨지고 비웠으니 채울 수 있는 날이 될까? 아니면 이렇게 고민만하다 그냥 시간을 보내 버릴까? 왜 이렇게 나의 청춘은 아는 게 없고 미래가 불안하기만 한 걸까 그래도 남은 기간은 꼭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다.

뽕리_혜련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딱히 특별한 고민 없이 좋은 사람들과 여유롭게 웃으며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 참 좋다. 세 번째 소감을 쓰는 지금 다이어리를 펼쳐 다시금 지난 나의 한 달을 되돌아본다. 5월 역시 야속하리만큼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이제 이곳에서의 생활은 마치 내가 태어나고 자라온 동네인양 모든 것에 익숙하고 자연스럽다. 이런 기분이 좋다. 이 기분으로 매일을 맞이하려니 가슴 한 켠엔 뭉치 모를 설렘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여전히 난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사람이 좋고 사람으로부터 감동받았다. 매번 하는 것이지만 잘~ 살아야지라는 다짐은 오월에도 계속되었다. 물론 변화도 있었다. 가족이 생겨 행복했다. 함께 지낸지 한 달,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인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항상 감사하다. 나에게 있어 가족이란 무엇이며 그 소중함을 연신 일깨워주고 계신다. 엄마, 아빠는 가끔 한국에 있는 나의 가족들의 안부를 물어봐 주신다. 그럴 때마다 많이 그립고 보고 싶다.

팀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던 시간을 가졌다. 여태껏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큰 고민이 없었던 터라 힘들었다. 선뜻 건네기 어려웠던 많은 것들이 응어리져 참 많이 답답하고 화도 났지만 지금은 많은 대화를 나눴고 모두 노력하고 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이제는 정이 많이 들어버렸다. 결론은 모두가 웃을 수 있길 바란다.^.^ 이제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시간에 쫓기지도 더 욕심 내고 싶지도 않다. 그냥 항상 초심을 기억하며 이 기분 이 감정 그대로 이어가고 싶다. 잘~ 살아야겠다. 내 삶을 응원한다.

슈브로_기용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소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일기처럼 지금 생각 나는대로 막 쓸게
중간평가는... 아무 걱정 없이 쉴 수 있었던 시간?

지금까지 하고 있는 활동들과 앞으로 해야 할 활동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버거워...

지금까지 제대로 쉬어본 적은 있었던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끝내고 맞는 휴식시간은 다른 활동을 뒤로 미루게 한다. 휴식
을 취하고 다같이 힘을 모아 미뤄진 것들을 차근차근 끝낼 수도 있겠지만 한 둘
이어야 말이지...

계획된 활동들을 시간에 맞춰 제대로 준비해서 잘 끝낸 적이 있었던가?

(온전히 나만의 생각)

2~3일전 촉박해진 시간에 맞춰 겨우겨우 끝낼 뿐.. 하는 것들이 많나?

그런 와중에 중간평가는 활동에 대한 고민과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
다.

슈브로_기용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이렇게 활동들이 버거운데 굳이 해야 하는 건가..?

왜 해야 하는거지..? 꼭 해야 하나..?

전 기수들이 해왔으니까 해야 하나..?

활동 하나하나에 의문이 들고 확신이 없는데..?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다고?

누가 하기 싫대? 할 수는 있지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런데 해야 하는 활동의 기준은 머고? 안해도 되는 기준은 먼데?

팀원들 대부분이 관심이 안가서 하고 싶지 않은거? 그럼 관심 있고 해보고 싶어하는 팀원은 어떡하지?

그래서 하지 말자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 안하면 뭐하냐고?

Y에도 안가고 그냥 쉬겠지..? 그럼 뭘 해야 하지..?

뭘 할지 찾아야지. 찾아가 봤어? 정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그 정도로 마을을 잘 알고는 있어?

여기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는게 아니고 할려고 하지 말라고?

난 여기 비리시리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 하는거야.

라운아띠는 지역의 문제점들과 발전가능성을 청년들이 나서서 찾아 연대하면서 지역발전을 이루는... 뭐 그런거라며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슈브로_기용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아무튼 지역의 청년으로서 마을의 구성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찾아 봤냐는 얘기야.. (난 지금 제 정신이 아냐)

우리는 생각이 갇혀있어. 그럴 수 밖에 없어. 이렇게 교육받았는걸

한국에서 정말 머리 아프게 생각했던 활동계획들을 가지고 이 곳에 왔는데..그 시간들 때문에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어. 생각이 갇혔어.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채 생각이 갇혔다고.. !

그래서 계획했던 활동들을 여기에서 진행할 때 우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문제의 접근방법조차 잘못된거지. (내가 뭘 소리를 하는건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도 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정말.....

국제자원활동이라는 엄청난 타이틀 덕분에 내가 뭐라도 된냥.....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많아.,, 그 동안 팀원들에게 소홀하게 대했어. 내 자신의 중심을 못 잡고 팀원들한테는 당연히 소홀했지..지금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매일 이랬고 앞으로도 그럴테지만.,,하하

그래도 중간평가가 끝나고부터는 활동보다는 팀원들과 즐겁게 지내다 갔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노력할거고

우리 팀이 즐겁고 좋으면 활동도 즐겁게 잘 될거라고 하잖아.,,?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쿠쉬_현희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너무 다양한 감정과 혼잡한 생각들이 똥똥 떠다녔던 5월 이기에 차근차근 정리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기는 하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인상적인 순간들에 대해 떠올리곤 하는데 5월을 돌이켜보면 홈스테이와 중간평가가 그러했다.

3, 4월은 늘 새롭고 설렘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았고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말에 공감했다. 도시의 복잡거림이 아닌 평화롭고 조용한 시골에 산다는게 좋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에게 여유가 하나도 없어졌다. 물론, 여유는 물리적인 시간보다 마음을 다스릴 때 찾아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쉽없이 달려오긴 했다. 한국의 그리운 사람들한테 보내고 싶었던 엽서 한 장도 여유롭게 써내려 갈 힘이 없었다. 하나의 활동이 끝나면 다음 활동이 기다리고 있었고 숨이 턱턱 막히는 더운 날씨에 나의 체력은 바닥을 쳤다. 관계 마저 배격거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완전히 길을 잃은 것만 같았다.

그렇게 지쳐버렸을 때, 중간평가가 시작되었다. 중간평가 PT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발표를 하는 것에만 곤두서 있던 내게 짧았던 3일이지만 모든 것을 멈추고 돌아보게 하였다. 매너리즘에 빠져있었고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 헤매고 있었다.

쿠쉬 - 현희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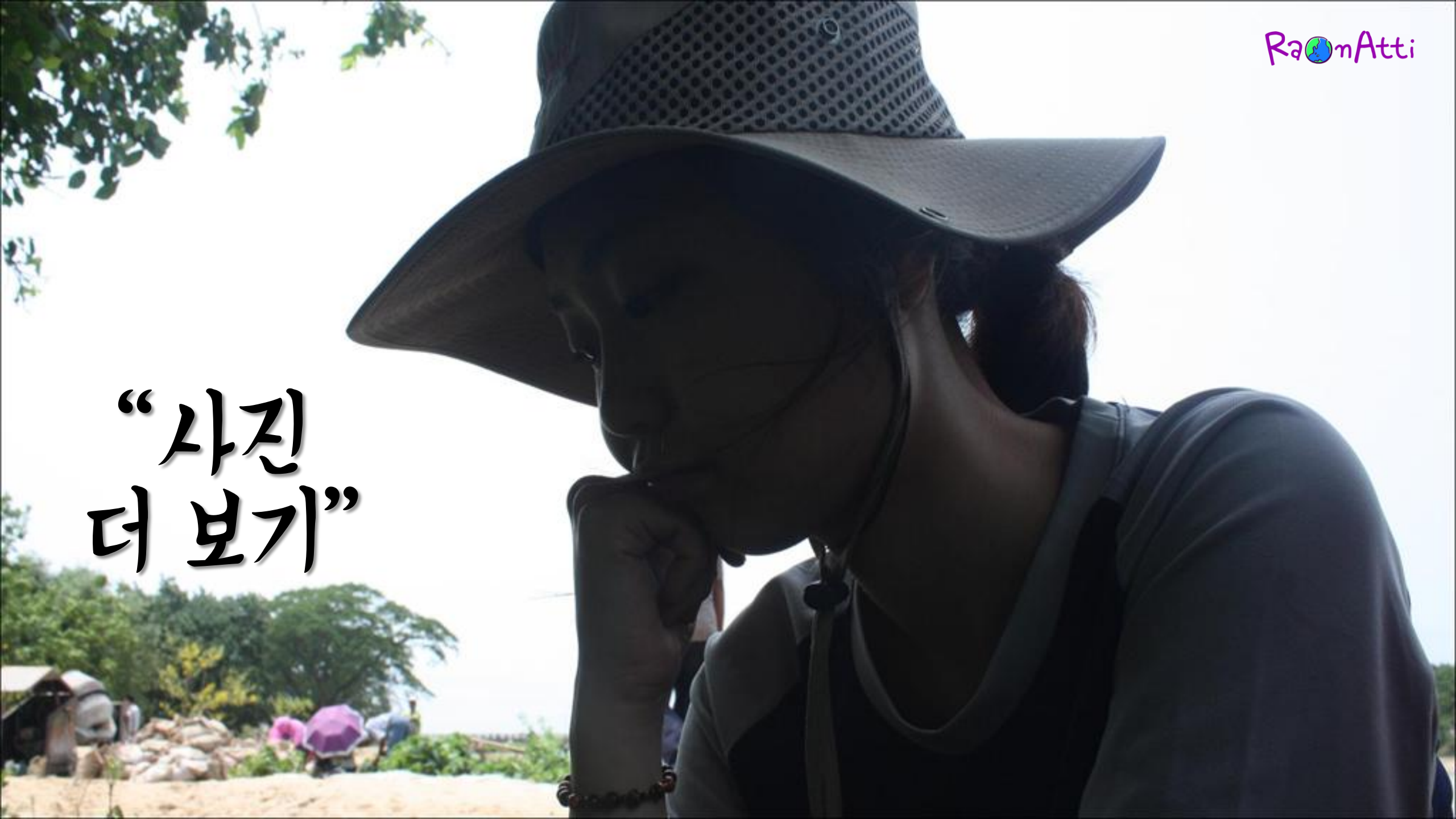
소감

그런데 문제는 모두 내 안에 있었다. 결국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설령 나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했고 용기를 냈다. 말 한마디를 먼저 건다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른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나는 우리 팀원들을 믿고 많이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표현은 많이 서툴어도 말이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 고맙고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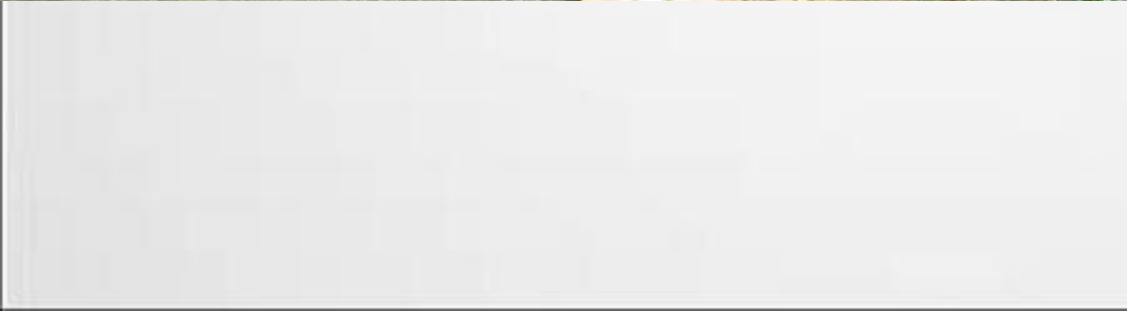
다양한 방글라 사람들을 만나면서 심지어 같이 살기까지 하면서 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새롭게 보게 된다.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나날들이다. 홈스테이를 하면서 가족들은 나와 매일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개인적인 공간은 존중받고 싶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나를 보며 내가 너무 개인적으로 살아왔나 싶기도 하다. 또한 이미 라온아띠가 익숙해져 버린 가족들이 너무 당연하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고 이전 기수의 단원들이 적응했던 부분이라면 나도 똑같이 해야한다고 여겨지는 것이 힘들었다.

그렇다. 한국에서도 '일상을 산다'는 것은 늘 재미있고 즐거운 일만 있는 동화 같은 세계가 아니라, 문제에 부딪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갈등이 난무했던 그런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방글라데시 비리시리에서 일상을 살고 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가 아닌 비리시리에서 말이다. 한편으로는 이만큼 왔다는 것이, 이렇게 적응 했다는 것이, 여기까지 살아온 모습이 대견하다. 남은 시간은 나에게 더 감사함이 넘치기를... 더욱 즐기자! 미친 듯한 이 날씨, 더워조차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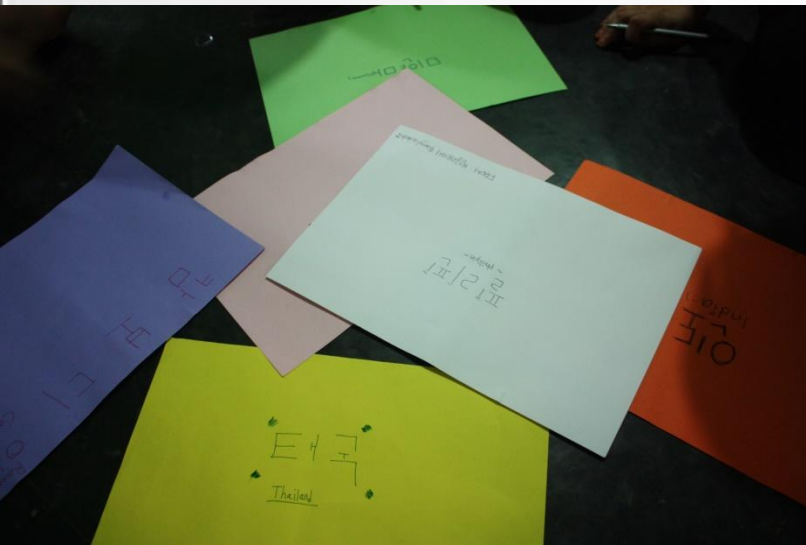
“사진
더 보기”

































엽사 BEST

웃으면 복이와요



**이달의
벙글어
한마디**

**돈노뵤
: 감사합니다**

আবার দেখা হবে

아바르 데카 호씨
(다시 만나요)

